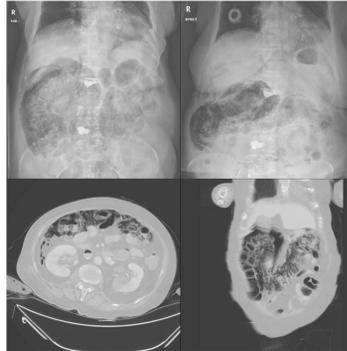


Pneumatosis Intestinalis and Inferior Vena Caval Gas in a Patient with Neutropenic Enterocolitis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Seoul, Korea

*Jong ho Yoon, Dong-Yeop Shin, Chae ho Moon, Geon wook Kang, Hye Jin Kang

Neutropenic enterocolitis (NE)—one of the most serious gastrointestinal complications—is a clinical syndrome that occurs in the setting of disease- or chemotherapy-induced neutropenia. Complications of NE include bowel necrosis with perforation, fistula, stenosis, massive bleeding, abscess formation, and pneumatosis intestinalis (PI). We experienced a patient whose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can showed pneumoretroperitoneum, intramural gas in the colon, and inferior vena caval gas. Her condition improved after treatment with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and broad-spectrum antibiotics. We report the case of this patient along with a literature review. Most physicians recommend initial conservative management with bowel rest, intravenous fluids, total parenteral nutrition, broad-spectrum antibiotics, and normalization of neutrophil counts. Surgical intervention is recommended in the event of obstruction, perforation, persistent gastrointestinal bleeding despite correction of thrombocytopenia and coagulopathy, or clinical deterioration.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환자에 있어서 스파르가눔증 1예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철호, 이지현, 전현정

서론: 스파르가눔증은 만속열두조충의 제2기 유충인 충미충의 인체 감염을 말하는 말하는 것으로 세계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스파르가눔증은 인체의 모든 장기를 침범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피하종괴로 발견되며 연부 조직 종양과 감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행 지역에서도 드물게 발생하므로 진단 시 스파르가눔증을 고려하기란 임상적으로 어렵다. 최근 저자는 항암치료 중인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 환자에 있어서 피부 전이 의심하에 시행한 절제 생검에서 스파르가눔증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만성폐농흉과 신증후군으로 치료받은 과거력 있는 63세 남환으로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은 후에 3차례의 R-CHOP 항암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오른쪽 대퇴부의 피하종괴 소견 보여 검사 위해 입원하였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하였으며 오른쪽 대퇴부 및 둔부, 좌측복벽 등 4곳의 대사향진된 병변소견을 보였다. 이후 오른쪽 대퇴부의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하종괴에 있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상 기생충이나 곰팡이 감염을 의심할 만한 석회화가 동반된 만성 육아종 염증소견을 보여 대퇴부의 피하종괴에 조직검사를 재시행하였고, 이 과정 중에 5-6 cm 길이의 기생충을 발견하였고, 재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스파르가눔증을 진단하였다. 그의 병변에서의 외과적 적출의 한계로 이틀동안 프라지관텔 총 7,200 mg을 복용하였고, 이후 외래 추적 관찰중이다. **고찰:** 스파르가눔증의 진단은 환자의 임상증상, 생식과거력, 호산구증가증, 효소결합 면역흡착검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확실한 진단은 총채의 외과적 적출이나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다. 본 환자의 경우 후향적 문진을 통해 약 40년 전 수십마리의 뱀을 먹었다고 하며 그 외에는 특별한 과거력이 없었다.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자기공명촬영 및 초음파를 시행하였으나 기생충을 의심할만한 명확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호산구증가증 및 효소결합 면역흡착검사서 음성소견을 보여 만약 조직검사에서의 기생충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본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